

가경자 하느님의 종 몬체 그라세스

개인 신심 기도문

주님, 주님의 종 몬체에게 하느님의 뜻에 따라 조용하고 기쁜 봉헌의 생활의 은총을 내려 주시어 일상생활 안에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셨나이다. 저 또한 사랑으로 저의 일상을 당신께 바치며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 몬체에게 영광을 비추시어 그의 전구를 통해 제가 구하는 기도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여기에 기도 지향을 넣으세요)
아멘.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교황 우르바노 8세의 교령에 따라, 위 기도문은 어떠한 교회의 판단을 의도하지 않으며, 공적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몬체라트 그라세스 (Montserrat Grases) 는 1941년 7월 10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났다. 8 남매 중 둘째 딸로 형제자매들과 함께 독실한 가톨릭 가정에서 자유를 사랑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랐다. 가정에서부터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관대하게 가족들과 이웃을 섬기는 봉사의 정신을 배웠다. 취미 생활로 운동과 음악, 그 지역의 전통 춤을 즐겼고 친구들과 함께 연극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1957년, 몬체는 하느님께서 자신을 오푸스데이로 부르시고 계심을 깨달았다. 오푸스데이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적인 삶을 통해 거룩함을 찾는 길이다. 그는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에게서 도움을 구했고,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오푸스데이에 입회하게 된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노력에 있어서 특별히 그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인성, 특히 성체성사를 사랑하였고 성모님에 대한 애정과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려는 순수함과 열정을 가졌다. 그는 자신의 의무였던 학업과 단순한 일상에서의 일을 통하여 하느님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였다.

1958년 6월에 몬체는 다리에 통증을 느꼈고 골수암 선고를 받았다.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꾸준히 인내하며 훌륭히 견뎠다. 항상 기쁨과 활기감을 잃지 않고 친구들과 친지들과 가깝게 지냈고 사도적인 열정으로 투병 중에도 그들이 하느님을 가까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18살의 나이로 성 목요일이었던 1959년 3월 26일에 세상을 떠났다.

몬체의 시복시성을 위하여 1962년 12월 바르셀로나 교구에서 교구 시복시성위원회가 설립되었고 1968년 3월에 종료되었다. 1974년 2월 교황청 시복시성성의 조사에 대한 법령이 발표되었고 1992년 5월, 시복 절차의 정당성을 밝히는 법령이 발표되었다. 1999년 11월에 최종 시복 조사 서류가 시성성에 제출되었고 몬체라트 성모 축일 전야였던 2016년 4월 26일, 교황 프란치스코는 시복시성성의 판단에 따라 몬체를 가경자로 선포하였다.

가경자 몬체라트 그라세스의 전구로 은혜를 받으신 분은 한국 오푸스데이 홍보국,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가톨릭 회관 113호, 혹은 info@opusdei.or.kr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문은 교회의 승인을 받았음을 밝힙니다.